TV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스페셜 30 생방송 세상의 아침 1~2부	6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7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하얀 거짓말〉	05 KBC 뉴스지금 3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00 KBS 8 아침 뉴스타임	8	30 특집 다큐 〈아이 러브 코리아〉	30 아침 연속극 〈녹색마차〉
30 KBS 뉴스	00 아침드라마 〈장화홍련〉 30 여유만만	9	30 기분 좋은 날	05 좋은아침 플러스원 30 좋은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행복한 세상 55 여성공감	40 지구촌 뉴스	10	45 MBC 뉴스	40 SBS 뉴스
55 바른말 고운말	00 VJ 특공대(재)	11	00 주말연속극 〈잘했군 잘했어〉(재)	00 월드베스트 세계의 도시문화탐방
00 KBS 뉴스 12	10 앙코르 일일연속극 〈미우나 고우나〉(재)	12	00 MBC 뉴스와 경제 40 W 스페셜	00 뉴스와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KBS 걸작선 〈해신〉(재)		1	25 뉴스 후	00 네트워크현장 고향이 보인다
00 KBS 뉴스 10 6·25 기획 KBS 중계석 오페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10 KBS 네트워크-청주	2	15 문화 四色	00 SBS 뉴스 10 로스트 월드
	00 2TV 스페셜 코미디쇼 희희낙락	3	10 호국보훈의 달 특집 〈몽골로 간 북한전쟁고아〉	00 TV특강 행복플러스
00 KBS 오늘의 경제 10 사랑의 가족 35 TV유치원 파니파니	10 꼬꼬마 꿈동산(재) 40 천하무적 크래쉬 비드맨	4	00 뽀뽀뽀 아이조아 30 우리는 명탐정	00 일지매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00 KBS 뉴스 5 15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10 2TV 하이라이트 〈위기탈출 넘버원〉(재)	5	00 MBC 뉴스 20 요리보고 세계보고 베스트 35 생방송 전국시대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사투리쇼 얼룩말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 칼럼 우리 사는 세상	10 리빙쇼 당신의 여섯시	6	30 MBC 뉴스 50 특집 따뜻한 TV 〈이렇게 만듭니다〉	25 생방송! KBC투데이
00 KBS 뉴스네트워크 30 러브 인 아시아	10 무한지대	7	45 일일시트콤 〈태희 혜교 지현이〉	05 시사터치 따따부따 15 일일 드라마 〈두아내〉
25 일일연속극 〈집으로 가는 길〉	00 KBS 8 뉴스타임 20 KBS 8 뉴스타임-광주전남 30 30분 다큐	8	15 일일연속극 〈밥 줘〉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생활의 달인
00 KBS 뉴스 9	00 1 대 100 55 월화 미니시리즈 〈결혼 못하는 남자〉	9	00 MBC 뉴스데스크 50 MBC 스포츠뉴스 55 창사 48주년 특별기획 〈선덕여왕〉	55 SBS 대하사극 〈자명고〉
00 시사기획 쌈 50 느티나무		10		
00 KBS 뉴스라인 30 콘서트 필	05 상상+	11	10 PD 수첩 〈나이 21세, 월급 5천만원〉	05 긴급출동! SOS 24
15 KBS 뉴스 25 스포츠 스포츠 35 영화가 좋다(재)	15 생방송 시사 360 45 클래식 오디세이	12	05 MBC 뉴스 24 2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MBC 프라임 〈농업 CEO 시대 농부, 희망을 경영하다〉	15 나이트라인 45 세상발견 유레카

EBS

06:0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초급)
06:30 세계테마기행 〈동유럽의 교차로, 루마니아〉
07:10 리틀 프린세스
07:25 신기한 스쿨버스
07:50 칙칙폭폭 처깅턴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그림 그려줘, 루이
08:30 달려라 카카
08:40 달려라! 도라라
08:50 깨미랑 부카채카
09:00 뽀롱뽀롱 뽀로로
09:15 방귀대장 뿡뿡이
09:30 몰리와 나
09:35 또또바를 찾아라
09:45 치로와 친구들
10:00 60분-부모
11:00 최고의 요리비결
11:30 다큐 프라임
12:20 하나뿐인 지구 〈저어새의 왕국, 강화도〉
13:10 공부의 달인
13:40 문학사랑
13:45 똑똑! 영어놀이터
14:05 치로와 친구들
14:20 빼꼼 시즌2
14:30 워드 월드
14:55 또또바를 찾아라(재)
15:05 방귀대장 뿡뿡이(재)
15:20 알록달록 콩콩이
15:35 달려라! 도라라(재)
15:45 깨미랑 부카채카(재)
15:55 딩동댕 유치원(재)
16:15 리틀 프린세스(재)
16:30 페넬로페, 뭐 할까?(재)
16:35 칙칙폭폭 처깅턴(재)
16:45 빨강머리 앤
17:10 워드 월드
17:35 신나는 과학 애니메이션 〈Why ? 〉
17:50 〈생방송〉톡! 톡! 보니하니
18:50 빼꼼 시즌2
19:00 스톰 호크
19:25 이상한 나라의 폴
19:50 공룡캠프의 비밀
20:20 EBS 창사기획 특집 토론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자〉
21:30 〈생방송〉 EBS 뉴스
21:45 지식채널 e
21:50 다큐 프라임 〈창사기획 - 한반도의 인류〉
22:40 공부의 달인
23:10 다큐 10 +
00:00 지식채널 e
00:05 EBS 스페이스-공감
00:55 문학사랑

EBS플러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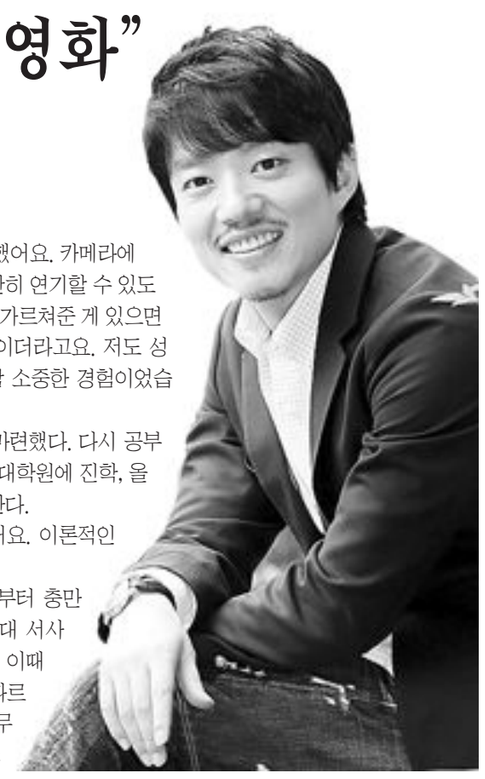
07:00 EBS 포스 〈수학 I 〉
07:50 EBS 기본과 특별한 〈국어(상)〉
08:40 〃 〈사회〉
09:30 EBS 학습자료실 클릭! 사이언스
09:40 EBS 수능 플러스 〈수리영역〉
10:3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내신6감 〈국어(상)〉
12:50 〃 〈화학〉
13:40 EBS 기본과 특별한(재) 〈국어(상)〉
14:30 〃 〈사회〉
15:20 EBS 탐스런(재) 〈한국지리〉
16:10 〃 〈화학 I 〉
17:00 EBS 수능특강 선택-고3(재) 〈한국지리〉
17:50 EBS 학습자료실 〈과학사〉
18:00 EBS 포스(재) 〈고전문학〉
19:00 〃 〈수학 I 〉
20:00 EBS 수능특강 선택-고3(재) 〈화학 I 〉
21:00 EBS 수능특강 선택-고3 〈중국어〉
21:50 EBS 수능플러스(재) 〈수리영역〉
23:00 EBS 수능특강-고3(재) 〈언어영역〉

EBS플러스2

08:00 EBS TV 중학 1학년 〈국어〉
08:40 〃 〈수학 1-1〉
09:20 EBS 중학 1학년 퍼펙트 체크업 〈수학 1-1〉
10:00 방귀대장 뿡뿡이
10:15 딩동댕 유치원
10:35 알록달록 콩콩이
10:50 또또바를 찾아라
11:00 요리조리팡팡
12:00 EBS TV 중학 2학년 〈국어〉
12:40 〃 〈수학 8-가〉
13:20 EBS 중학 2학년 퍼펙트 체크업 〈수학 8-가〉
14:00 중학 사고와 논술
15:30 2009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이론편(재)
16:00 10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3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초급)
17:00 EBS초등 1학기 총정리 〈수학 3-가〉
17:30 〃 〈수학 4-가〉
18:00 〃 〈수학 5-가〉
18:30 〃 〈수학 6-가〉
19:00 EBS TV 중학 1학년(재) 〈국어〉
19:40 〃 〈수학 1-1〉
20:20 EBS 중학 1학년 퍼펙트 체크업(재)〈수학 1-1〉
21:00 EBS TV 중학 2학년(재) 〈국어〉

"후배들과 함께 성장한 울림좋은 영화"

영화 '킹콩을 들다' 중학교 역도 코치役 배우 이범수



"상업성과 작품성 사이에서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가 되면 이른바 '예술' 영화에 출연하고 싶다는 이범수를 최근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최근에는 대중적 성향에 좀 더 가까운 스포츠 영화 '킹콩을 들다'에 출연했다.

영화는 한때 잘 나갔던 역도선수가 부상으로 실의에 빠졌다가 지방 역도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지도자로 거듭나는 얘기를 줄거리로 삼고 있다. 이범수는 중학교 역도 코치 이지봉 역을 소화했다.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눈앞이 환해졌어요. 이야기가 주는 울림이 좋았습니다. 게다가 역도 선수는 제가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캐릭터였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그러나 생각보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역도 선수로 분한 장면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몇 장면을 위해 한 달간 모진 연습을 감내해야 했다. 하루에 8시간씩 오전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오후에는 한국체육대학에서 역기 드는 훈련을 받았다.

이번 영화를 통해 다수의 신인급 연기자들과 호흡한 경험은 그의 연기 인생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소개한다.

"영화 경험이 거의 없는 아이들과 호흡을 맞추는 게 막막했지만, 밥 먹을 때조차 연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카메라에 뒷모습만 잡힐 때라도 아이들이 편안히 연기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연기했습니다. 제가 가르쳐준 게 있으면 아이들은 마치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더라고요. 저도 성장하고, 아이들도 성장하는 느낌. 참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범수는 최근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다시 공부를 시작한 것이다. 그는 고려대 언론대학원에 진학, 올해 가을학기부터 영상 이론을 공부한다.

"대학원 준비는 한 1년 정도 했어요. 이론적인 부분을 더 공부하고 싶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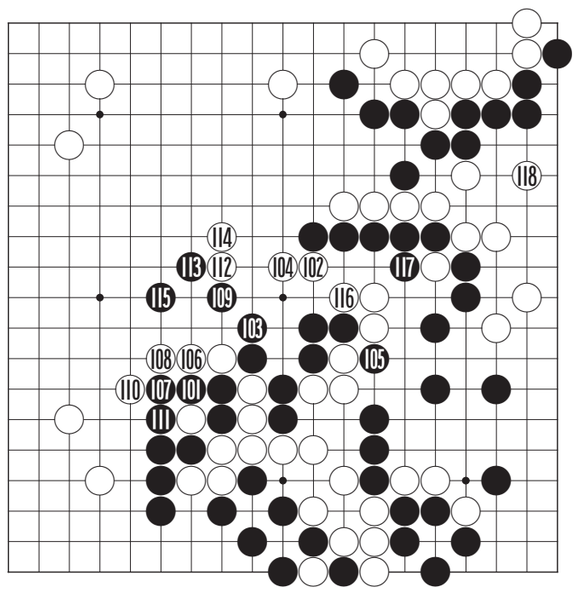
사실 그의 지적 욕심은 학창시절부터 충만했다. 대학시절 그리스 비극부터 현대 서사극까지 거의 안 해본 연극이 없었다. 이때 해본 연극만 무려 38편. 그의 말에 따르면 중앙대 연극영화과 사상 전무후무한 최다 출연 기록이란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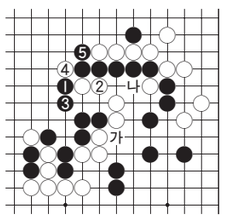
제18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위협수'에 손 떨린 강행옥 5단

2회전 6보 (101~118)

白 박광주 5단 〈포스코〉 黑 강행옥 5단 〈변호사회〉





〈참고도〉

백 대마가 생사의 기로에 선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박광주 5단은 백 102로 붙여 가는 아리까리한 수를 들고나와 강행옥 5단을 현혹한다. 이 수는 106으로 모는 수가 선수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흑도 '끊기면 곤란할 것'이라는 엄포성 위협수였다.

과연 백 대마를 거의 잡고 손이 떨린 강행옥 5단은 흑 103으로 물러서서 몸을 사렸는데 이 수가 결정타를 놓친 나약한 수가 되었다. 이 수로는 무조건 '참고도'의 흑 1로 막고 3으로 늘 곳. 백이 4로 끊더라도 5로 나가고 나면 '가'와 '나'로 끊는 수가 맛보기여서 백 대마가 사는 수가 없었다.

실전은 흑 105로 끊어 잡았으나 가장 작게 잡았고 백 110을 얻어맞아 대마를 잡혔어도 '이 정도면 얼마든지 둘 수 있다'는 희망을 백에게 갖게 한 것이 문제였다. 그러나 아직도 흑이 많이 우세하다. 백 118로 흑 대마를 공격하여 이제부터가 중요한 장면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3일(음 5월 1일 己亥)

子 36년생 재물이 생기고 승진하는 격이나 이성문제는 조심하라. 48년생 일상사 조심하고 마음도 조심하라. 60년생 일고는 있으나 봄은 멀지 않다. 72년생 자기 입을 조심하라 신용이 무너질까 걱정된다. 84년생 자신 있게 추진하라. 행운의 숫자 : 02,41

丑 37년생 재물의 손실, 사기, 실물을 조심하라. 49년생 재물이 사방에 있으나 내 것이 아니다. 61년생 정신이 혼미하니 심상의 안정을 취하라. 73년생 주변의 이성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85년생 주변이 산만하고 어지럽다. 행운의 숫자 : 06,28

寅 38년생 지인의 협조가 있다. 50년생 처가나 시가 편에 애사가 생길 수 있다. 62년생 처음 가는 길이니 살펴서 행동하면 만사가 길사로다. 74년생 특별히 건강에 유념해야 뒤탈이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10,42

卯 39년생 풍파를 만나니 마음을 단단히 하지 않으면 대손이 보인다. 51년생 혼자 하는 게임이니 재미가 없다. 63년생 구설이 따르고 신체의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 75년생 남의 말은 경청하되 결정은 혼자 하라. 행운의 숫자 : 13,41

辰 40년생 다시 한번 도전의 기회가 보인다. 52년생 뜻밖의 기회가 오니 적극적인 참여로 기회를 잃지 마라. 64년생 모든 일이 순조로우나 처자의 건강을 살펴보라. 76년생 바빴던 일손을 놓고 가족을 돌아보라. 행운의 숫자 : 18,32

巳 41년생 새로운 인연은 있으나 큰 기대는 거두어라. 53년생 새로운 직업과 인연이 생기니 초심은 잃지 않아야 하리라. 65년생 세 번 생각하고 행동하면 명예는 지키리라. 77년생 순풍에 항해하나 역풍에 대비하라. 행운의 숫자 : 23,43

午 42년생 불연이면 친지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 54년생 새로운 일이 생길 수 있으나 신중히 결정하라. 66년생 생활의 무료함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변화를 가져라. 78년생 서류와 윗사람으로 인해 불편이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11,34

未 43년생 순류에 항해하는 격이다. 55년생 식구들과 떨어져 지내고 애사가 발생할 수니 주변을 살펴보라. 67년생 암중모색을 하나 쉽지는 않다. 79년생 어부지리는 있으나 조그맣다. 행운의 숫자 : 12,30

申 44년생 의심스런 인연을 만나니 생각하며 행하라. 56년생 재물과 처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다. 68년생 절대 손윗사람과 신사나 동업은 하지하라. 80년생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5,33

酉 45년생 크게 상심할 일이 생기니 올바른 행실을 해야 할 것이다. 57년생 큰 성공의 기틀이 마련된다. 69년생 하는 일마다 불편한 인연이 따를 수가 있다. 81년생 학문의 발전이 있다. 행운의 숫자 : 20,39

戌 46년생 금전 사기 대소비가 있을 수도 있고 직업 변경도 우려된다. 58년생 기력이 쇠하니 심장을 살펴보라. 70년생 남편과의 불만과 불평이 나타나나 본인의 잘못이다. 82년생 또 다른 이성을 만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2,16

亥 47년생 뜻밖의 협조가 있으나 결과는 미미하다. 59년생 많은 고역이 따르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71년생 부부간의 언쟁을 현명하게 넘겨라. 83년생 부부의 애정이 소록소록 살아난다. 행운의 숫자 : 24,27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1331>

I'll think about it
생각해볼게요

A : Can you help me with these boxes?
B : Maybe later.
A : Will you help me after dinner?
B : I'll think about it.
A : Don't bother. I'll do it myself.

A : 절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 상자를 옮겨야 하는데요.
B : 나중이라면…
A : 점심식사 후에 도와줄 수 있나요?
B : 생각해볼게요.
A : 됐네요. 내가 직접 하지요.

* maybe : 어쩌면
* think about ~ : ~생각해보다
* bother : 신경쓰다, 고민하다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1331>

ここでべんとうを食べてもいいですか
여기에서 도시락을 먹어도 좋습니까

A : ここでべんとうを食べてもいいですか。
B : いいえ,べんとうを食べてはなりません。
A : それでは,べんとうはどこで食べますか。
B : 休憩室で食べます。

A : 여기에서 도시락을 먹어도 좋습니까.
B : 아니오,도시락을 먹어서는 안됩니다.
A : 그럼,어디서 먹습니까.
B : 휴게실에서 먹습니다.

* べんとう(도시락)
* 休憩室(きゅうけいしつ ; 휴게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408>

打包
남은 음식을 포장하다

A : 怎么不多吃点儿?
zěnme bù duō chī diǎnr
(쩐머 뿌 뚜오 츠 디얼)
B : 吃饱了, 吃不了。
chī bǎo le, chī bù liǎo
(츠 빠오 러 츠 뿌 liǎo)
A : 把剩下的打包吧。
bǎ shèngxia de dǎbāo ba
(바 셩시아 더 따빠오 바)
B : 小姐, 打包一下。
xiǎojiě, dǎbāo yíxià
(샤오지에, 따빠오 이시아)

A: 왜 더 안 먹어?
B: 배불러서, 먹지 못해요.
A: 그럼 남은 건 싸달라고 하자.
B: 아가씨, 포장 좀 해주세요.

吃不了 (chī bù liǎo) ⓞ 먹을 수 없다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한자 이야기 <1048>

吮癰舐痔
빨 연, 등창 옹, 핥을 지, 치질 치

연옹지치(吮癰舐痔)는 종기의 고름을 빨고, 치질 앓는 밑을 핥는다는 뜻으로, 남에게 천박하게 아첨하면서 부끄러운 줄 모름을 비유한다.

공자(孔子)는 비루한 사람(鄙夫)과는 일을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유는 원하는 바를 손에 넣기 전에는 어떻게든 얻을 것을 걱정하고, 이미 얻고 나서는 잃을까 걱정하여 못하는 짓이 없기(無所不至)때문이라고 하였다.(陽貨篇) 주자(朱子)는 '못하는 짓이 없음'을 설명하기를 작게는 '연옹지치'를 하고, 크게는 부모와 군주를 시해(弑害)한다고 하였다. 양쪽 모두 인륜(人倫)을 아는 인간이라면 '하기 어려운', 아니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다.

연옹지치의 실제 예는 아니겠지만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자유당 정권시절, 이승만 대통령이 한강에서 낚시하던 중 방귀를 뀌자 수행원이 옆에 있다가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물 속 붕어들이 구역질을 하고, 풀숲의 벌레들이 토악질을 했다고 한다. 이 정도는 은밀하면서도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오늘날의 아부에 비하면 귀여운 아부가 아닐까?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